

다산포럼

염무웅



지난 10일자 신문을 펼치고 제목에 끌려 읽기 시작했다가 곧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일까 자책감 같은 것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마지막 종합토론회를 스케치한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예정보다 30분을 넘겨서도 토론회는 시작되지 못했다. 200석이 넘는 회의장에 40명 남짓만이 앉아 있었다. 토론의 발표문을 집필한 한 교수는 “급한 일”로 일본 출장을 갔다고 한다. 토론 패널 중 몇몇은 아직 회의장을 찾지 못했다. 단상에 마련된 6명의 자리엔 공동발표자 1명만이 앉았다.”

고백하건대 나는 신문을 펼칠 때까지 학단협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비록 그동안 자신을 학단협 구성원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 사실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6월항쟁 1주년이 되어가던 1988년 6월 초 여러 학술단체가 공동 주

최한 연합 심포지엄에 나 자신도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한양대에서 열린 그때 행사는 주제별로 여러 교실에서 진행되었는데 교실마다 옆에 가득찬 청중들로 만원이었다.

6월항쟁으로 고조된 사회적 흥분이 아

를 뒀던 IMF 외환위기 사태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일단을 실감할 수 있다.

아마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일부 극우파들로부터 좌파정부가 호칭되는 지난 10년 동안 자본의 전일적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기반이 점점 더 훼손된 사실일 것이다.

그 현실적 귀결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인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기득권세력이 전방위적 진군을 거듭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른바 좌파정부의 사전준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인지도 모

그러나 오늘날 학자의 양심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오로지 국가권력만이 것은 아니다. 학문의 존립기반, 즉 자유로운 연구와 발표 및 비판적 토론을 압박하는 사회적 메카니즘에는 가정, 동료, 직장, 학회, 언론 등이 모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는 가족들의 요구는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일 수 있다.

그 결과 다수의 교수·학자들은 고독하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기보다 평탄한 제도적 관행 속으로 퇴각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운동 자신이 제도권 내부에 공식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한국의 학술운동은 작금에 이르러 새로운 자기혁신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출발한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억압적 대응은 학자들에게 적어도 지난 10년보다는 더 분명한 선택의 계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정부로 오인될 만한 불투명성이 제거된 오늘, 학문의 진보성이 가져야 할 내용은 역사적으로 더욱 투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문학평론가·영남대교수·다산연구소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의 빛과 그림자

직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학단협은 이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단체들의 협회체로서 그해 11월에 발족되었고, 당연히 이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는 바와 같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동안 사회현실은 강산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듯하다. 그런 일들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질없게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승리에 이어 세계화의 구호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미구에 우리 삶

른다.

그러나 진보적 학술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예정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도 성사되지 않은 민망한 모습을 이런 외부적 조건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토론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적절한 자기성찰이다. 교수들이 학문활동의 전 과정에서 학진(학술진흥재단)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고, 진보화계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특별기고

朴鎭東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요, 등화기(燈火可觀)의 계절이다. 농민들이 여름철에 팍팍 열심히 지은 농사를 가을에 수확하듯이, 지식인들은 가을철에 열심히 책을 읽어 지식과 교양을 수확해야 한다. 가을철은 답지도 출지도 않고 밤이 길어서 독서하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다. 이 좋은 계절을 헛되이 보내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책 속에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나아가 갈 길이 있다. 우리 인류가 수 천년 동안 쌓아온 사색과 연구와 체험과 실험실습 결과와 모험과 경험들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을 통하여 선조들과 과거 인류가 쌓아온 진리의 보배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책이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가.

프랑스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서도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지 않던가. 워고난 책을 모아서 서점을 차렸다는 사담도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나폴레옹

그래서 최근 도산(倒産)하는 출판사나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내에서도 일제시대부터 있어왔던 ‘삼복서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그 밖에 작은 책방들도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국민으로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과거 10여년 동안 국민독서운동을 전개해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독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용한자(常用漢字) 1천800자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이 알파벳 문화권이라면 아시아는 한자문화권이다. 따라서 우리 국어의 70%가 한자어이며 더구나 이의동음어(異議同音語)가 80%나 된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면서 한글로 쓴 책을 읽고 있으니 읽기는 하나 한자어의 뜻을 잘 몰라서 개념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운동 회원들에게 한자교육을 하기 위해 언론교육연구회에 참여하여 한자

우리나라 독서력 166등

이 혁명을 일으켜 귀족주의의 각종 법률을 시민위주로 고친 것도 많은 책을 읽고 얻어진 철학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를 영웅으로 받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서력은 어떠한가. 수일 전 도 신문에 게재된 강진군수 황주홍씨의 기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독서력은 세계 192개국 중 166위라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경제면에서는 세계 13위요, 스포츠면에서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가 독서력에 있어서는 166위라니 이런 수치(羞恥)스런 일이 또 어디 있는가.

필자는 그동안 각 대학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흐뭇해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젊은이들이 도서관을 꼭 메운 것은 독서가 아니라 대학입시, 외국유학 준비, 취직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허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왜 철학이나 교양, 역사, 과학, 기술 서적 등은 읽지 않는가.

교실 운영 등 20여년 동안 국한혼용교육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한자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독서력은 괄목상대(刮目相對) 할 만큼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한자교실이나 한문학원에 다니면서 한자능력 급수시험합격자들의 독서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눈부시다.

한자문화권인 일본은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단계적으로 1천945자를 모든 교과서에 써서서 교육하고 있고, 북한도 1968년부터 김일성 교시로 중학1년(남한 초등 5년)부터 3천자를 단계적으로 교과서에 써서서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한글전용교육을 하고 있으니 독서력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한 과학교과서를 예로 보자. “사출형식(射出形式)에서도 분말(粉末)의 입도분포(粒度分布)는 최밀충전(最密充填)의 유기물질(有機物質)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일본, 북한, 대만, 홍콩 학생들은 뜻을 아는데 우리 학생들만 뜻을 모르니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前 광주일보 상임고문>

NGO 칼럼

송기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동 성폭력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는 순수한 영혼을 무참히 짓밟는 영혼 살인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된다. 성인의 성폭력 피해와 다른 점이다.

하루에도 수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본 센터를 찾고 있다. 이들 중에는 어릴 적 당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뒤늦게 고백하며 “지금이러도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묻는 상담자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 당한 성폭력으로 인해 남모름 고통

내가 받은 고통을 담임교사에게 되풀이 주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범죄는 어린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 또는 우리 주변을 핏발보고 있다.

이 같은 무관심은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아동 성폭력 범죄를 낳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3건

이동 성폭력, 가장 잔혹한 범죄

속에 인생을 살아왔다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경우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뒤집어 쓴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감은 더 높은 물론 잔인한 복수극을 상상하기도 한다.

최근 센터를 찾은 30대 초반의 한 주부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지속적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엔 성폭행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 주부는 부모에게 아담 맞을 것이 두려워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통 속에 살던 이 주부는 결혼 후 여자 아이를 낳게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걱정이 앞섰다.

자신처럼 똑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만 끝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이 주부는 “당시 담임교사를 고소할 수 있느냐”고 상담을 의뢰했다. 이 주부는 센터에서 “그동안

가량 발생한다. 공식적인 통계 수치가 이 정도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발생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린 아이들은 성폭력 범죄에 항상 노출돼 있다. 우리 모두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당연히 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권침해’라는 말을 무기 삼아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인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피해 경험에 대해 어떻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지원센터 대표>

피부염 유발 놀이터 고무 매트, 모래로 교체

남편의 출장 때문에 독일을 방문했다. 그곳의 놀이터는 우리나라와 달랐다. 우리나라 아파트단지 놀이터는 대부분 고무매트가 깔려 있는데 독일은 전부 모래가 깔려있었다.

고무매트는 페타이더 등을 가공해 만든 것이라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무매트는 모래성 쌓기와 같은 ‘놀이’를 할 수 없고,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육적·환경적으로 고무매트는 모래에 비해 취약하다는 게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모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전량 교체하고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제도화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앞으로 신속하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를 깔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깨끗한 모래로 교체했으면 한다. 여건상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모래를 소독 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아토피나 기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말로만 ‘아토피 인성’을 외치며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행했으면 한다. ▲김진수·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시설

‘돈줄’ 막힌 지역중소기업 방치할 건가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 독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하남산단 등에서는 자금난에 따른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광주상의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자금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65.8%에 달했고 ‘개선됐다’는 업체는 1.3%에 불과했다. 금융권이 돈줄을 죄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신용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종합금융대책을 통해 신용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대출은커녕 채권 회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부

터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최악의 상황이다. 원자재가 급등과 소비 위축, 환율 불안에 자금난까지 겹쳐 빈사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차치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자금난을 방치해선 우량 중소기업까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져 흑자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더 경제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경제위기도 타개할 수 없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유동성의 탄력적 관리와 정책자금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권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2중, 3중고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병원이 더 많다니

광주·전남지역 중소 병·의원들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병원이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절실하다.

광주의 경우 올 들어 문을 닫은 100병상 미만 병·의원은 모두 63곳인데 반해 개원한 병·의원은 50곳에 불과했다. 특히 자금난 등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간 지난달에는 11곳이나 문을 닫았다. 전남은 91개가 생기고 96곳이 없어졌다. 동네 의원은 58곳이 개업했지만 82곳은 폐업했다.

지역 중소 병·의원의 잇단 휴·폐업은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를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도 큰 병원만 찾고 있다. 중소병원들이 고가 첨단 의료장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남대 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가 늘고 있고, 수도권 등으로 빠

져나가는 환자는 더 많다고 한다.

문제는 병·의원의 잇단 폐업이 지역 의료안전망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은 의료공공화가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발표된 전국 응급의료센터 실태조사 결과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광주지역 대형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8.6시간이나 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비율은 13.1%로 전국 최고였다. 대형 병원 솔림이 부실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료 안전망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수밖에 없다. 진료비 현실화도 방법일겠지만, 의료기관 간 역할분담이 더 시급하다. 중소 병·의원인 1, 2차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대학병원 등 3차 기관은 고난도 질환과 연구개발에 매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들도 전문 분야별 특화와 서비스 제고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해선 안 된다.

無等鼓

기억에 남아있는 명구중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학창시절 별의미없이 무작정 영어로 따라 외운 덕에 지워지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한 구절이다. 링컨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멋진 표현도 했다.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를 비난하고 욕하던 인물과 자신의 능력이 링컨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며 깔보던 라이벌, 상대 당 인사를 국무장관 등 내각의 중요 자리에 앉혔다. ‘어찌 그런 오만한 자들을 중용하려 하느냐’며 참모들이 극구 말렸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며 뿌리쳤다. 링컨은 그들이 나라를 살리는 데 매진하도록 간청했고, 그후 그들이 나라와 링컨을 위해 충성을 다했음을 불문가시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선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힐러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상대 당 후보였던 메케인도, 반대파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제비상시기에 링컨처럼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의 전형을 보여줄 모양이다.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싸움을 멈추려 했는데, 원래 싸움이란 네 편이나 내편이나 그놈이 그놈이고 둘다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다. 그렇다만, 미국의 두 대통령이 보여준 해법에서 보듯, 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느 편을 꾸짖고 누구를 안아줘야 할지 확인해진다. 분열도 단합도, 경제위기 극복도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6	이론재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2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